

## 항일유적지내 조경수목 식재 실태와 대책



이병천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 산림생태과

다시 8.15 광복 56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항일에서 극일로 사상의 변천은 일어났지만 우리 나라 내에는 항상 왜색 문화가 판치고 어른들은 일본말을 하는 것이 큰 자랑으로 알았으며,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는 일본의 정치 문화를 계승하였고 그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우리 대중 국민에게 입김을 끝없이 불어넣어 왔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우리가정에 쓰는 전자제품 대부분이 일본제일 경우도 있었다. 1980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가

공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이것조차도 일본이 우리 나라에 큰 기술적 혜택을 주듯이 뺏뺏하게 잘난 채 할 때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현재도 한·일간에는 콩치어장 문제로 시작되어 교과서 문제로 양국간에 감정이 상할 때로 상해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저들에게 웃음 꺼리가 될 것이 없는 가 한번은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 知彼知己는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항상 보고있는 식물(주로 조경식물)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가로조성, 공원조성이나 정원에 나무를 심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라 자생수종으로 환경을 조성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아름다운 꽃·나무들을 도입하여 공원이나 街路 등을 조성해왔다. 사실 조경수·정원수 등의 나무재배의 기초식식이 일천한 때는 초기에 외국의 안정된 재배법이 개발된 외국수종들을 도입 재



〈그림 1〉 독립기념관 경내에 있는 유관순열사 기념비 뒷편에 있는 전나무들이 우리나라 전나무로 알고 심었으나 식물동정 결과 일본산 *Abies homelepis*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배 이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국토를 만드는데 있어 당연히 시너지가 높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미국이나 영국 네덜란드 등 화훼산업이 발달한 유럽국가와 우리가 가장 많은 조경수종을 도입하는 일본과 다른 한가지는 이들 국가들은 외국 수종을 도입 허가권을 가진 사람만 도입하고 또 도입 수종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겨 식물의 이름 학명 산지 종자 산포방법 등 도입 수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께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급한 정책이 이 모든 것을 생략하였다. 대부분의 도입은 조경업체가 개인적으로 도입했다. 그것도 가까운 일본에서 도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공원 및 정원수로서 향나무가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 향나무는 우리나라 일부 지방에 분포하는 종으로 종자로 재배를 해서 공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은 관계로 자생지에서 무단으로 굴취하거나 일본에서 도입을 하였다. 한때 부자집 정원에는 일본산 가이즈까향나무 없는 곳이 없었다.

사실 이 나무를 조형적으로 만들기도 쉽고 만들면 아름다워 대단히 인기가 있어 현재에도 향일유적지인 독립기념관, 현충사, 행주산성, 국립대전현충원, 칠백의총에 심겨져 있으며 특히 국립대전현충원은 대표수종으로 심겨져 있었다(1998년 임업연구원 실사).

그후 단풍나무 붐이 일어나면서 또 한번 우리나라에 있는 단풍나무나 당단풍을 사용하지를 않고 청단풍이나 노무라단풍, 공작단풍 등 많은 종류의 단풍나무 품종을 무작위적으로 도입하여 심겨져왔다. 이 종도 현재에는 독립기념관, 현충사, 충렬사, 탄금대, 행주산성, 제2국립묘지, 충무공 묘, 청주삼일공원, 탑골공원, 칠백의총, 유관순기념관 11곳 모든 지역에 심겨져 있는 실정이며 우리 나라 남쪽지역에 자라는 단풍나무와 도입단풍수종들과 전문가들도 구분이 어렵다고 하니 이것이 생태계 교란이 아닐까. 그외에도 철쭉류나 영산홍류의 무작위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산철쭉과 섞어 심으므로 이 종 역시 우리 나라 산철쭉이 어느 것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도입종류도 독립기념관, 현충사, 충렬사, 탄금대, 행주산성, 제2국립묘지, 충무공 묘, 청주삼일공원, 탑골공원, 칠백의총, 유관순기념관 향일 유적지 11곳 모두에 식재 되어있다. 물론 이러한 식물들이 향일 유적지내에 전혀 심겨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러한 기념관이나 유적지내의 조경식물을 심을 때는 각 식물의 산지를 전문가를 통해 자문하고 외래식물의 경우 심어야하는 당위성과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충신들이 묻힌 칠백의총에 대통령이 기념식으로 일본산 금송을 심는 똬는 법하지 않을 것이다. 국일은 큰 소리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찾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자료는 1998년에 임업연구원에서 향일 유적지 조경수목 실태조사때 조사한 자료이며 이 자료를 토대로 현재 각 유적지 별로 수종 개량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 향일 유적지 별 일본산 수종 식재현황

**독립기념관(충남 천안시) :** 가이즈까향나무, 겹철쭉, 낙상홍, 딸보리수, 빈도리, 삼색병꽃, 실향나무, 아촌단풍, 오엽송, 옥향나무, 이대, 일본눈향, 일본목련, 자산홍, 청단풍, 철엽수, 흰철쭉

**현충사(충남 아산시) :** 가이즈까향나무, 겹벗나무, 구골나무, 금송, 금향, 나무수국, 낙상홍, 삼나무, 실화백, 아촌단풍, 영산홍, 오엽송, 옥향나무, 일본목련, 자산홍, 청단풍, 철엽수, 편백, 홍도, 홍철쭉, 화백, 황금편백, 황철쭉, 흰철쭉

**충렬사(충북 충주시) :** 아촌단풍, 영산홍, 오엽송, 청단풍

**탄금대(충북 충주시) :** 실화백, 영산홍, 옥향, 일본목련, 일본잎갈나무, 청단풍

**행주산성(경기 고양시) :** 가이즈까향나무, 아촌단풍, 영산홍, 오엽송

**국립대전현충원(대전광역시) :** 가이즈까향나무, 겹벗나무, 겹철쭉, 계수나무, 낙상홍, 실편백, 실향나무, 아촌단풍, 영산홍, 오엽송, 옥향나무, 일본목련, 일본조팝, 일월영산홍, 자산

홍, 청단풍, 칠엽수, 편백, 홍매자, 화백, 황금편백, 흰철쭉

충무공묘(충남 아산시) : 야촌단풍, 영산홍, 오엽송, 옥향나무, 일본목련, 일본잎갈나무

삼일공원(충북 충주시) : 실화백, 이대, 청단풍, 화백

탑골공원(서울특별시) : 공작단풍, 뜰보리수, 야촌단풍, 이대, 일본목련, 자산홍, 청단풍

칠백의총(충남 금산시) : 일본원산 : 가이즈까향나무, 금송, 뜰보리수, 삼색병꽃나무, 실화백, 야촌단풍, 영산홍, 일본잎갈나무, 일본조팝, 화백, 황금화백, 황철쭉

유관순기념관(충남 천안시) : 수양벚나무, 야촌단풍, 오엽송, 청단풍, 황매화

**조경수**

